



ISLAND ADVENTURE

STORY

목차

업데이트 내역.....	2
1. 프롤로그: 전설의 섬, 엘디시아.....	3
2. 게임 프로그레션	4
2.1. 액트 1: 고요한 마을	4
2.1.1. 챕터 1: 실리안 마을의 평온한 나날	4
2.1.2. 챕터 2: 숲에서의 만남	6
2.1.3. 챕터 3: 노인의 이야기	8
2.1.4 챕터 4: 헤어짐	11
2.2. 액트 2: 선택과 성장	13
2.2.1 챕터 1: 이든의 선택.....	13
2.2.2 챕터 2: 이든의 성장.....	16
2.2.3 챕터 3: 작별.....	20
2.3. 액트 3: 새로운 시작	23
2.3.1 챕터 1: 모험의 시작.....	23

업데이트 내역

날짜	내용	작성자
2025-03-05	첫 스토리 작업	양진규
2025-03-10	스토리 전반적인 작업	양진규
2025-03-11	스토리 수정 작업	양진규

1. 프롤로그: 전설의 섬, 엘디시아



세상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전설이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소문, 그리고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섬, “엘디시아¹.”

엘디시아를 찾는 자는 전지전능한 힘을 손에 넣고, 금은보화를 거머쥐며, 심지어 불로불사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도 그 섬을 직접 본 적은 없다. 그저 지도에도 없는 환상의 섬,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금단의 영역.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 실리안에서 살아가던 젊은 사냥꾼 이든은 언제나처럼 마을의 일을 돕고, 사냥을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숲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된다. 노인은 탐험가 로크였다.

이든은 로크를 마을로 데려와 간호하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리고 며칠 후, 로크는 이든에게 자신의 여행과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디시아를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떠돌았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크의 이야기는 이든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불꽃을 피워 올렸다. 그는 이대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다. 자신을 단련하고, 모험을 떠나 엘디시아를 찾겠다고.

1. 엘디시아: 전설로만 전해오는 섬, 그 누구도 도달 하지 못하였다.

2. 게임 프로그래션

2.1. 액트 1: 고요한 마을

2.1.1. 챕터 1: 실리안 마을의 평온한 나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가 놓여 있었다. 따뜻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집안 곳곳을 감쌌다.

이든의 어머니는 국자를 들어 조심스럽게 수프를 떠주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빵을 뜯어먹으며 차분한 태도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든은 빵을 집어 한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고 고소한 빵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다.

"이든, 오늘은 뭘 할 거니?"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든은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다.

"숲에 가서 사냥을 할 거예요. 고기가 부족하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활을 조심히 다루거라. 요즘 산짐승이 많다."

이든은 활을 집어 들었다. 가볍게 활줄을 당겨보며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항상 하던 일이잖아요."

그는 늘 해오던 대로 사냥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오늘도 어김없이 숲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이든이 활을 둘러메고 집을 나서자, 마을 거리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농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밭을 갈고 있었고, 대장간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튀며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의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마을을 지나던 한 주민이 이든을 발견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든, 오늘도 사냥 나가는 거냐?"

이든은 활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네, 저녁거리를 좀 잡아와야죠."

그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다. 거기에는 물을 뜨고 있는 리라가 있었다.

그녀는 바가지를 들어 물을 채우다가, 이든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든! 오늘도 숲에 가는 거야?"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갈래?"

리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에 손을 올렸다.

"당연하지! 널 혼자 두면 또 위험한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이든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옆을 지나쳐갔다. 리라는 급히 물을 뜨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향하는 길.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 들판의 풀들이 살랑이며 흔들렸다. 숲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리라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래서 말이야, 어제 마을에서 누가 염소를 잃어버렸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든을 쳐다보았다.

이든은 큰 관심이 없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산짐승이 물어갔겠지."

하지만 리라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있잖아, 내가 보기엔 산짐승이 가져간 게 아닐 수도 있거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아졌어!"

이든은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또 마을의 이상한 소문이야?"

리라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라니까! 마을 어른들이 말하길 밤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그 순간, 숲 입구가 가까워지면서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비치고 있었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강하게 들려왔다.

이든은 활을 단단히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쉿... 이제부터는 주위를 살펴야 해."

2.1.2. **챕터 2: 숲에서의 만남**

실리안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들이 빛을 가렸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들었고,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살랑이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든은 활을 단단히 쥔 채 앞을 주시했다. 사냥을 할 때는 언제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의 곁을 따라가던 리라는 전혀 긴장감 없는 얼굴로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며 말을 걸었다.

"이든, 넌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진지해야 해? 좀 여유를 가져봐!" 리라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든은 활줄을 가볍게 당겨보며 피식 웃었다. "사냥할 때는 집중해야지. 너처럼 계속 떠들면서 하면 짐승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래? 그런데 난 이상하게도 네가 사냥할 때마다 따라가는데도 우리가 굶어 죽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리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이든은 말없이 고개를 젓고 다시 사냥감을 찾기 위해 숲을 살폈다. 하지만 리라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나저나 어제 마을에서 잃어버린 염소 있잖아. 단순한 짐승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든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활을 쥔 손을 살짝 움직였다. "또 마을의 이상한 소문이야?"

"진짜라니까! 마을 어른들이 말하길 밤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리라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말했다.

이든은 그녀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숲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한 줄기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 나오며, 그 아래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든과 리라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비춰 쓰러진 인물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무엇보다 손에는 낡은 나침반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꼭 쥐고 있었다.

리라는 숨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든, 저 사람... 살아 있는 거야?"

이든은 빠르게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숨은 쉬고 있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리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여긴 마을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깊은 곳이야. 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든은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었다. 이 깊은 숲속까지 외지인이 혼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해."

이든은 결단을 내리고 노인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노인의 무게가 상당했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리라, 나 좀 도와줘."

리라는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그를 도왔다. 그녀는 노인의 다른 팔을 잡고 부축하면서 틀거렸다.

"너... 진짜 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생각이야?"

이든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안 도우면 이 사람,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리라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노인을 부축했다. "알았어, 알았어. 마을까지 조심히 가자."

두 사람은 힘겹게 노인을 부축하며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숲속은 기묘하게도 조용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흔들렸고, 숲의 깊은 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든과 리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2.1.3. **챕터 3: 노인의 이야기**

이든의 집 안은 무겁고도 조용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밝지 않았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고 걱정스럽게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한 노인이 깊은 잠에 빠진 듯 누워 있었다.

"이든아... 우리가 이분을 돌봐야 하는 걸까?" 어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체도 모르는 분인데..."

아버지도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낯선 외지인이야. 게다가 이렇게 깊은 숲에서 발견됐다고? 확실히 이상하지 않나?"

이든은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분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이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망설이며 이든을 바라보았다. 그의 강한 결의를 읽자,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이든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깊은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돌봐보자.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라."

어머니도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조심은 해야겠지만... 사람을 돕는 건 마땅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여, 이든의 가족은 낯선 노인을 돌보기로 했다.

며칠이 흘렀다.

노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숨소리는 점점 안정되었다. 가족들은 그를 위해 식사와 따뜻한 담요를 준비했고, 이든과 리라는 그의 곁을 지키며 회복을 기다렸다.

어느 날 밤, 리라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숙삭였다. "이든, 이 사람 언제쯤 깨어날까?"

이든은 노인의 얼굴을 살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숨을 쉬고 있어. 기운을 차릴 거야."

그 순간, 노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가 싶더니, 눈꺼풀이 느리게 떨리며 떠올랐다.

"...여긴... 어디지?"

거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든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이며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정신이 드세요?"

어머니도 다가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노인은 희미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도 피로한 듯했지만, 점차 정신을 차리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는 점차 안색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든의 가족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탐험가다."

그 한 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이든과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리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정말 탐험가세요?" 이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노인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리라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팔짱을 껴다. "지금도요?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은퇴한 게 아니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은퇴? 탐험가에게 그런 단어는 없지. 나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단다. 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떠날 거야."

이든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엘디시아도 찾으러 가신 건가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노인은 짧은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찾고 있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바다를 건너고, 셀 수 없는 섬을 탐험했지만... 아직 엘디시아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섬이 전설이든, 실재하든, 내 발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이든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럼 다른 모험 이야기는 없어요? 탐험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요!"

리라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너처럼 호기심 넘치는 청년이라면 들려줄 만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날 밤, 이든과 리라는 밤새도록 노인의 모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바다를 떠돌던 해적들과의 위험한 조우, 폭풍을 피하려다 우연히 도착한 정체불명의 섬,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진 고대의 유적을 탐험한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이었다.

이든은 가슴이 뛰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을을 벗어나 바깥세상을 궁금해했지만, 직접 떠날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진짜 탐험가가 있었다.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이든도 그 여정에 함께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밤중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이든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피워놓았다.

2.1.4 챕터 4: 헤어짐

태양이 동쪽 하늘을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며 길가의 풀잎 위에는 이슬이 반짝였다.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마을 입구에는 마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그 앞에는 로크가 서 있었다.

한 달 전, 숲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탐험가다운 기운이 감돌았고, 허리춤에는 가죽 가방과 칼집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떠날 준비를 마쳤다.

조용히 서 있던 이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떼지 못하고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이든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로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익숙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네. 탐험가는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지."

이든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땅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무언가를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때, 리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든이 말은 안 해도 아쉬워하고 있어요." 리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로크는 가볍게 웃으며 이든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가볍지만 따뜻했다.

"소년, 덕분에 난 한 달 동안 몸을 추스를 수 있었어. 너와 네 가족에게 정말 고맙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낡고 오래된 나침반이었다. 금속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인의 길을 안내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로크는 그것을 이든에게 내밀었다.

"이건 네가 가져라."

이든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건... 탐험가님께 중요한 거잖아요."

로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네가 가져야 해."

이든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난 이 나침반이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넌 아직 길을 찾는 중이지 않니?"

그 한마디가 이든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나침반을 받았다. 손바닥 위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처럼.

로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군. 그때는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이든을 바라보았다.

이든은 아무 말 없이 나침반을 꼭 쥐었다.

로크는 손을 흔들며 마차에 올라탔다. 마부가 고삐를 살짝 당기자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가 부드럽게 일었다.

그리고, 로크는 마을을 떠났다.

이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차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에 쥔 나침반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2.2. 액트 2: 선택과 성장

2.2.1 챕터 1: 이든의 선택

실리안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햇살이 마을 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농부들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 대장간에서는 불꽃이 튀며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의 아이들은 들판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다.

겉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든의 머릿속은 로크가 떠나던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다. 바늘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마치 지금의 이든처럼.

"이든,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냐?"

한 농부가 곡식을 나르다가 이든을 발견하고 웃으며 말을 걸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든은 흠칫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그는 서둘러 곡식을 옮기려 했지만, 마음이 온통 딴 곳에 가 있었다. 손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한 그는 실수로 곡식 자루를 떨어뜨렸다.

"괜찮냐, 이든?" 농부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든은 멍쩍 웃으며 급히 곡식을 주워 담았다. "네... 죄송해요."

그러나, 손을 뻗어 곡식을 줬던 중...

그는 자신의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는 나침반을 내려다보았다.

바늘은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실리안 마을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갔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언덕 위, 이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듯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이든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떠나야 할까? 남아 있어야 할까."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이 나침반은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걸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밤이 깊어져도, 그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이 언덕에 올라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침반을 단단히 쥔 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갔다.

이든의 집은 따뜻한 촛불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든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든아, 요즘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마을 일에도 집중 못하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했다. "맞다. 무슨 고민이 있는 거냐?"

이든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주먹 쥔 채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전 떠나려고 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떠나다니... 어디로?"

이든은 눈을 피하지 않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보고 싶어요. 로크 탐험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직접 길을 나서서 저 너머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이든을 바라보았다.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알고 있었다."

이든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마을 밖의 위험을 직접 겪어 본 적이 없다. 그걸 알고도 떠날 수 있겠느냐?"

이든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래서 전 여기서 수련할 거예요."

부모님은 눈을 크게 떴다.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더 강해질 거예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진심이라면 막지 않겠다."

이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눈을 마주보며 엄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약속해라. 무작정 떠나지 말고,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떠나라."

이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를 단련할 것이다.

2.2.2 챕터 2: 이든의 성장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실리안 마을은 아직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새벽안개가 자욱하게 퍼지고 있었다. 이든의 집안,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냥용 활, 잘 정비된 검, 그리고 몇 가지 생존 장비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이든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으로 활줄을 가볍게 당겨보고, 검날을 한 번 훑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든, 준비 다 됐니?"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 결정을 했으니, 가서 끝까지 해내라. 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라. 숲속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할 수도 있다."

이든은 눈을 마주보며 단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아요, 아버지. 전 이곳을 떠나기 전에 더 강해질 겁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든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천에 싼 약초와 말린 고기를 내밀었다.

"이걸 가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든은 그것을 받아 들고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한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 안개 속으로 그의 발걸음이 조용히 사라졌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이든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곳이라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나를 단련하기에 충분하겠지."

그는 오래된 바위와 거대한 나무들이 둘러싼 넓은 공터에 도착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와 부드럽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좋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야겠어."

이든은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를 위한 거처를 만들었다. 그는 작은 천막을 세우고, 주변에서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불 피우는 법, 덫을 놓아 사냥하는 법, 그리고 물과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는 돌을 부딪혀 불씨를 만드는 것에 익숙해졌고, 간단한 덫을 이용해 작은 동물을 잡는 법도 배웠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든은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훈련했다.

"더 빨라야 해. 더 강해야 해."

그는 숲속에서 검을 휘두르며 홀로 연습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엉성했던 동작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허공을 가르는 검날의 궤적이 점점 더 정확해졌고, 몸놀림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목표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매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다. 처음에는 화살이 나무에 빗나가기 일쑤였지만, 점차 나무 중앙에 정확히 박히기 시작했다.

"조금 더... 더 정교하게."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다.

이든은 훈련을 마치고 천막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묘한 위화감이 스쳐갔다.

풀숲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늑대 무리.

여섯 마리의 늑대들이 포위하듯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이든은 빠르게 허리춤에서 검을 뽑았다.

"그렇지... 이대로라면 완전히 포위당하겠군."

한 마리가 갑자기 포효하며 점프했다!

이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하며 검을 옆으로 휘둘렀다!

늑대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검날이 허벅지를 스치며 얇은 상처를 남겼다.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나머지 늑대들이 더욱 거세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대로라면... 한 마리씩 상대해야겠어."

그는 재빨리 활을 꺼내 화살을 장전했다.

화살이 가장 가까운 늑대의 앞다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쓰러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이든을 노리고 있었다.

나머지 늑대들이 흥분하여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든은 활을 내려놓고 검을 양손으로 단단히 쥐었다. 바닥을 힘껏 박차며 한 늑대의 공격을 피한 후, 회전하며 검을 휘둘러 또 다른 늑대의 어깨를 베어냈다.

늑대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지만, 나머지 늑대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든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손으로 검을 다시 쥐고,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급습했다.

이제는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그가 늑대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늑대들을 하나씩 몰아냈다.

마침내, 마지막 늑대가 이든의 기세에 밀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늑대 무리는 싸움을 포기하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든은 거친 숨을 내쉬며 검을 내려놓았다.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로부터 2년 후.

이든은 더 이상 그때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숲에서 살아남았고, 수많은 수련을 거듭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이제 늑대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전투 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으며, 검과 활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그 바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정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군."

이든은 허리춤에 검을 차고, 활을 등에 멘 후 실리안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2.3 챕터 3: 작별

이든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길고 험난했던 2 년간의 수련을 마친 그는 더 이상 떠나기 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고,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다. 검과 활은 몸의 일부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발길은 결국 고향 집을 향하고 있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마당에서 어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한순간 손을 멈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한층 성장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든...?"

이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어머니는 모든 걸 잊은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곧장 달려왔다. 그리고, 힘껏 그를 끌어안았다.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떠나기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몸, 날카로워진 눈빛.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때, 집 안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그는 손에 연장을 들고 있었다가 멈춰 서서 이든을 바라보았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래, 왔구나."

이든은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컸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집안, 이든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음미하며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해야 할 말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내일부터 떠날 겁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이튼을 바라보았다.

"이튼아..." 어머니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빨리 떠나야 하니?"

이튼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2 년 동안 수련하면서 깨달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한참 동안 이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래, 너의 눈을 보니 결심이 선 것 같구나."

그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마을과는 다르다. 네가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더 강한 상대가 있고, 더 험한 길이 있을 거다."

이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왔다.

"이건 네가 떠날 때 필요할 거야. 몸은 항상 따뜻하게, 먹을 것도 잊지 말고."

이튼은 그것을 받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감사였다.

새벽. 항구. 이튼은 배에 오르기 전,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이 부서지고, 차가운 새벽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이제 출항할 시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튼이 돌아보자, 리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2 년 동안 그녀도 성장했다. 더 단단해진 표정, 허리에는 작은 단검이 매여 있었다.

"너 정말 떠나는구나."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리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이거 가져가. 행운을 가져다줄 거야."

이든은 부적을 받아 조심스럽게 손안에 쥐었다.

작은 돌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리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고마워, 리라."

리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약속해. 무사히 돌아온다고."

이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뒤돌아보았다.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있는 곳.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했다.

그는 배에 올랐다.

잔잔한 파도 위에서 천천히 떠나는 배.

그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리라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2.3. 액트 3: 새로운 시작

2.3.1 챕터 1: 모험의 시작

끝없는 바다. 이든의 배는 잔잔한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며 부서졌다. 바람은 돛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파도는 고요하게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나침반을 꺼내 펼쳐 보았다.

바늘은 한 방향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나침반을 응시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

그는 돛줄을 단단히 묶고, 앞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다.

이든의 표정이 굳어졌다.

"...좋지 않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파도가 점점 거세지며 배를 흔들었다.

하늘이 천둥소리로 가득 찼다.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내려쳤고, 폭우가 쏟아졌다.

이든은 이를 악물고 돛대를 붙잡았다.

"버텨야 해!"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며 배를 덮쳤다.

그리고, 시야가 검게 변했다.

이든이 눈을 뜬 것은 태양이 내리쬘는 이상한 해안가였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 가쁜 숨을 토해냈다.

"...젠장."

그는 힘겹게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살아남긴 했군."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변을 따라 난파된 배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깨진 판자들, 부서진 노, 물에 젖은 밧줄...

이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휘청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난파된 배의 잔해들을 뒤지며 자신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진 곳, 활과 화살통이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들고 화살을 하나씩 확인했다.

"다행이야... 화살은 몇 개 남아 있군."

조금 더 걸어가자, 검이 바위 틈에 걸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고 검날을 확인한 뒤, 허리에 단단히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했다.

이튼의 눈이 좁혀졌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섬의 안쪽을 바라보았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뒤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검을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섬의 깊은 곳을 향해.

(To be continued...)